

감성 가득한 노부부의 한결같은 사랑 이야기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닉 카사베츠 감독 '노트북'**

노름 놀이 관심을 끌 만한 신작이 좀처럼 영화관에 등장 하질 않는다. 아무래도 자체 제작에 주력하는 넷플릭스를 위시한 OTT 플랫폼의 편재함 때문인가 싶다. 옛 작품들이 재개봉되는 것으로 보아 아무 래도 오프라인 영화관은 아날 로그식 감상 스팟으로 바뀌갈 모양이라는 성급한 예 감이 앞선다. 결국 이번주도 재개봉 영화 '노트북'을 선택. 영화 '노트북'의 원작인 니콜라스 스파크의 소설 '노트북' (2004)은 미국의 베스트셀러였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곧바로 번역 출판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만 선풍적이지는 않았다. 기실 미국의 정서를 우리나라 사람이 수용하는 데에는 적잖은 차이를 갖고 있어서였을 것이다. 이 문화정서적 차이는 좀더 생각해볼 여지를 남긴다.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소식에 온 국민이 기쁨에 들떠 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두 번째 노벨상 수상소식의 감격에 한잔 아니 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다. 필자는 이 기쁨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싶다. 광주·전남 사람, 광주의 역사적 진실, 광주지역의 사회적 DNA를 고스란히 증명해 보여주



닉 카사베츠 감독 '노트북'.

에무필름즈 제공

있는 듯한 으스스함이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 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노벨문학상 선정이유에 대해 우리는 고대로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을 까? 이영준 문학평론가는 세계인이 놀라워하는 공감 영역이 우리와는 다른 게 있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에서 '영혜의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영혜와 결혼한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결정의 대목에 대해 한국의 대학생들과 영·미권 대학생들의 강의실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이며 인간의 개성을 말살하고 평균적인 인간으로 그려 내는지를 파악하고, 안하고의 차이라는 것이다. 이 지적처럼 '모두 병들었으나 아무도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고 많은

지...

우리가 외면하거나 스쳐 지나갔던 개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직시하며 쓰다듬는 한강 작가처럼 처절하지는 않지만 '노트북'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으로 어루만진다. 영화 '노트북'은 1940년대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청춘 남녀의 그렇고 그런 러브 스토리를 그리고 있다. 젊은이들의 열정 어린 사랑 이야기나 주역을 맡은 배우들의 러블리하거나 매력적인 외모의 눈요깃거리가 러브 스토리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액자 형식의 회상방식이나 원작과 시간차, 시퀀스 등을 달리한 감독의 영화적 구성력도 그저 무난한 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적어도 필자의 주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거나 드문 콘텐츠가 있었다. 노부부의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의 결말을 구성한 것이다. 더욱이, 이 이야기는 원작자 니콜라스 스파크

의 장인 장모의 실화였다 하니 성큼 다가오는 가을철 관객들의 감성을 채워줄 아젠다로서 잘 장치되었다고 본다.

영화는 요양원에서 알츠하이머 환자인 할머니 엘리에게 한 할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처음에 할아버지 노아를 낫설어 하던 엘리 할머니는 점점 노아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책 이야기에 빠져 든다. 책 이야기는 노아와 엘리가 처음 만나 때부터 전개된다. 1940년 여름 노스캐롤라이나주 해안가 마을 시부룩에서 열린 카니발, 17세의 노아 (배우 라이언 고슬링)는 엘리(배우 레이첼 맥아담스)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땔 수가 없다. 구애 끝에 둘은 사랑에 빠지지만 부호인 엘리의 부모는 마뜩찮은 노아를 때놓고 만다. 2차세계대전이 운명을 갈라놓고 우여곡절을 겪고 또 겪지만 결국 이들은 사랑을 이룬다.

마음은 원하는 것을 원한다. 어떠한 논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사랑에 빠지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의 마지막 순간 노아는 이렇게 말한다. “You are, and always have been, my dream.” (넌 언제나 나의 꿈이었어) 이와 유사한 순애보를 정음병 소설가의 자전적 저서에서 본 바는 있으나, 이를 두고도 필자와 필자의 주변인들은 아내를 잃기 전에는 그런 글을 쓸 수 없었을 거라며 냉정한 시선을 보낸 적이 있다.

영화 '노트북'의 재개봉이 아직껏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의미라면 우리 사회에 순애보의 잔재는 그래도 어딘가 있는 모양이다.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문학을 향한 폭력·문화가 가하는 침묵



취재수첩

박찬

취재2부 기자
chan.park@jnilbo.com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 국민이 들쭉인 가운데 그의 작품을 역사 왜곡이라고 폄하하는 세력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와 정치는 본질적으로는 독립적 가치를 지닌 분야지만, 역사, 사회문제, 현

안 등을 논할 때 양립하기도 하고 양 분야의 애매한 침범 영역을 두고 대립하기도 한다.

한강 작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부은 김규나 작가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모두 한강의 작품이 제주 4·3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역사적 트라우마 직시'라는 평을 들었던 작품의 태생적 탄생 요인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부류의 사람들일 것이다.

문학은 숫자로 된 기록과 형식화된 데

이터로 해석해 온 역사가 담아내지 못한 개인적 사유를 텍스트로 조망한 대안 기록물이 되기도 한다. 즉 이런 작품에 '역사 왜곡'과 '사상적 편향성'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건 창작 영역의 최전선에 있는 문학을 향한 직격적인 폭력이다.

반면 문화가 국제정세를 위시한 정치 영역을 교만하게 다루는 사례도 결코 적지 않다.

광주에서 지난달 7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제 미술전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 이스라엘 문화기관인 CDA(문화기관)를 앞세운 이스라엘도 30여개의 국가 관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에 5·18을 겪은 광주가 타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상과 고통에는 무감각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

인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광주정신의 계승과 연대를 가치로 내걸었던 광주비엔날레가 정작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국가관에는 침묵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시 곳곳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한동안 걸리기도 했다.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기습 공격을 가한 지 1년이 지났다. 전쟁은 가자지구에서 레바논, 시리아, 이란 등으로 확대되며 중동 전체가 전쟁터로 변할 수도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과 가자지구 보건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자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팔

레스타인인(민간인 포함)은 4만2000여 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약 70%는 어린이와 여성이다.

결국 전쟁과는 무관한 이들이 정치적 야망과 뒤틀린 국가관으로 인해 무수히 희생되고 있다.

정치가 현상에 대한 직관적 조사와 조치라면 문학(문화)은 자료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과 인생관이 시간과 시대를 관통해 해후 되는 예술적 수단이다.

이 두 가지는 시대·국내외를 불문하고 크고 작은 서로의 영역 침범으로 오랜 논란과 논쟁을 빚어왔다.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숙제에 반면교사로 삼을 사례들이 전쟁과 노벨문학상 등을 통해 현재도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